

5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이념, 허정숙과 이화림

장영은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혁명가 허정숙의 성장

- 아버지 허헌
- 허정숙의 학창 시절
- 조선여성동우회와 단발식

02.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의 활동

- 동아일보와 잡지 《신여성》
- 미국 체류와 여행기
- 허정숙의 근우회 활동

03. 허정숙의 여성해방론

- 조선여성의 해방
- 조선의 콜론타이
- 새로운 연애관

04. 허정숙의 정치 활동과 유서

- 해방과 귀국
- 사망과 유서

05. 이화림의 독립운동

- 이화림의 유년 시절
- 상하이의 한인애국단
- 광저우의 중산대학

06. 이화림의 혁명 활동

- 난징의 조선민족혁명당
- 조선의용대원의 재정비 교육
- 의과대학 진학

07. 이화림과 중국공산당

- 의과대학 졸업
- 중앙당교와 간부 활동
- 문화대혁명과 퇴직

2차시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의 활동

학습목차

학습목표

- 언론인이자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허정숙의 활동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동아일보와 잡지 《신여성》
- 미국 체류와 여행기
- 허정숙의 근우회 활동

동아일보와 잡지 《신여성》

언론인 허정숙

- 1925년 1월-5월
 -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
- 1925년 8월부터
 - 개벽사 발행 잡지 《신여성》 편집인
 - 필명 ‘정숙’, ‘허’, ‘수가이’, ‘스카이’, ‘칠보산인’, ‘SKY’ 등

「문 밖에서 26분」

-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기자의 눈에는形形色색의 사회상이 비추입니다. 그런 것을 다 쓸 지면도 없고 여유도 없으나 언제나 쓴대야 똑같이 불합리한 사회에 사는 우리로서, 더욱이 그러한 환경에 있는 여성으로서 궁하고 싶은 소리밖에 없습니다.
여하간 돌아다니며 신문 재료를 구하면 여성 사회만을 한정하고 다니기 때문에 별로 이렇다 할 재료가 없습니다.

「문 밖에서 26분」

- 이것으로 보아 우리 여성사회가 협착하다는 것과 또 실제로 활동하는 개인이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여성사회가 사회적으로 그 활동이 빈약하고 단조하다는 점은 역시 우리 사회 전체가 공허하고 적막하다는 것을 표증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문 밖에서 26분」

- 하여간 우리 전체로 볼 때 우리의 삶을 위하여는 진실하고 열렬한 혁신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될 것을 절실히 느끼었습니다. 기자로서의 느낌에 별다른 것이 무엇 별로 없고, 앞으로 이 직무의 목적으로 우리 부녀계를 위하여 함께 일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신여성》 1925년 4월호

잡지 《신여성》

- 1923년 9월부터 1934년 8월, 개벽사 발행
- 여성의 사회 진출과 여권 신장, 여성 교육, 여성 노동
- 여성의 사회 진출과 교육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



잡지 《신여성》

1925년 11월

- 남편 임원근의 구속

미국 체류와 여행기

1926년 5월, 아버지 허헌의 해외 시찰에 동행

- “미국의 소감을 무엇이라 해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금전만능의 세계인, 경제적 제국주의 국가인 이 땅에 온 나는 프롤레타리아의 비애를 더 느낄 뿐입니다. 따라서 사상과 배치되는 환경과 사람을 접촉할 때마다 나의 머리는 더 복잡해집니다.”

「뉴욕 통신」 《신여성》 1926년 10월호

1926년 5월, 아버지 허헌의 해외 시찰에 동행

- 미국 체류 중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수학하며
여성 단체 지도자들과 만남

「울 줄 아는 인형의 여자국, 북미인상기」

- “돈! 돈의 힘이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이 나라입니다. 자본주의 문명의 발달이 세계의 여러 자본주의 국가를 낳았지만 미국은 그중에 제일 가는 대표적 국가입니다. 이것은 이 나라를 밟기 전에 다 들은 바이지만 실제로 이 나라에 가서 그 생활에 접촉하고 보면 참으로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이다 하는 감상이 저절로 납니다.”

「울 줄 아는 인형의 여자국, 북미인상기」

- “또 이 나라의 부인에 대하여는 나는 처음 그들을 대할 때에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부족한 점이 없는 완전한 인형인 그 점입니다.

(...) 또 이 인형의 특색은 돈! 돈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 돈의 나라는 인간인 여자를

돈 잘 아는 인형으로 제조화하는 공장입니다. 또 여성의 권리 운운하지만은 여류

정객들은 가끔 의회에서 남자들의 희롱거리가 되는 사실도 있습니다.

「울 줄 아는 인형의 여자국, 북미인상기」

- 이 나라의 여성 권리는 인형에게 비위를 맞춰주는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별건곤》 1927년 11월호

1927년 11월

- 귀국 직후 ‘근우회’ 활동

허정숙의 근우회 활동

근우회

- 1927년 4월,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목표로 조직

근우회

- 근우회 창립 취지서

“세계 자매는 수천 년래의 악몽으로부터 깨어서 우리의 생활에 횡재하여 있는 모든 질곡을 분쇄하기 위하여 분투하여온 지 이미 오래이다. 조선 자매만이 어찌 홀로 이 역사적 세계적 성전에서 낙오될 리가 있으랴!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운동이 개시된 것은 이미 오래이다. 그러나 회고하여 보면 과거의 조선 여성운동은 분산되어 있었다. 그것은 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지도 정신이 없었고 통일된 항쟁이 없었다.

근우회

- 근우회 창립 취지서

고로 그 운동은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였다. 우리는 운동상 실천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으니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자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리는 우선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일어나라! 오너라! 단결하자! 분투하자! 조선 자매들아!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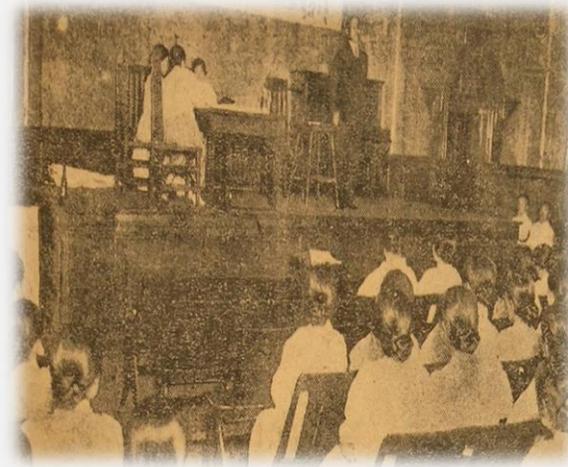
근우회 창립대회

- 1927년 5월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에 약 1,000여 명이 모여 개최

근우회 창립대회

- 제2회 전국대회
 - 강령수정위원으로 활동
 - 근우회의 운동론 설계, 규약 수정 착수
- 1929년 7월
 - 근우회 중앙집행위원 및 출판부장



근우회 창립대회

‘여학생 운동’에 관여한 허정숙

- 1930년 1월
 - ‘서울여자학생만세운동’ 연루 혐의로 검거
- 1930년 3월
 - ‘서울여자학생만세운동’ 배후 조작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 1930년 6월
 - 임신으로 출옥, 형 집행 중지

‘여학생 운동’에 관여한 허정숙

- 1931년 6월
 - 출산 후 재수감
- 1932년 3월
 - 출소



허정숙 수감사진

출옥 후 행보

- 1935년-1936년 경
 - 중국 망명
- 1938년
 - 중국공산당 산하 항일군정대학 입학

출옥 후 행보

- 1940년
 - 항일군정대학 수료
 - 팔로군 정치위원 역임
- 1945년
 - 화북조선독립동맹의 일원으로 북한행
 - 북조선공산당 입당

학습정리

- 언론인이자 여성 사회주의 운동가로 활동했던 허정숙
- 식민지 말기 정치적 활동이 금지당하자 중국으로 망명

다음 차시에서는

- 허정숙의 여성해방론

[출처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9708>

[출처02] 《중외일보》 1927년 5월 29일자 2면

[출처0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허정숙

(카드번호 : ia_6052 카드등록번호 : SJ0000008341)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